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2.13(금) ~ 2024.12.19(목)

제공일시 2024 12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12.13(금) ~ 2024.12.19(목)

제공일시 2024 12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 中 범용반도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할 듯

-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됨

-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한 무역 관련 협회가 최근 회원들에 소식지를 보내, 바이든 정부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를 조사키로 결정했다고 전함

-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무역대표부(USTR)가 조만간 조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함

[\(문화일보 2024.12.17\)](#)

2. 일본, 이르면 이번 주 '원전 회귀' 선언... 원자력 발전 비중, 2040년까지 20%로 높일 듯

- 일본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는 '전략 에너지 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해 왔던 원자력 의존도 감소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탈탄소화의 주된 수단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경제산업성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50%,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글로벌경제신문 2024.12.16\)](#)

3. 영국, 탄소 포집 사업 육성... 환경 소송 리스크 보전 약속

- 영국 정부가 80억파운드(약 14조6000억원) 규모의 가스 발전소 및 탄소 포집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이 환경 운동가의 법적 소송으로 인해 중단될 경우, 개발사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해함

- 1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이 보장은 잉글랜드 북동부 티스사이드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제공됐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영국 최초의 대규모 탄소 포집 사업이 될 전망이다

- 영국의 에너지기업 BP와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Equinor)의 합작사 넷제로 티스사이드 파워(NZT Power)는 최대 742메가와트(MW) 전력을 생산하며, 연간 최대 2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북해 해저 저장소에 운송·보관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4.12.18\)](#)

국내 정책

1. 정부,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추진에 2조7496억원 투자

- 정부가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2조7496억원을 투자함. 이는 올해보다 3.9% 증가한 규모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2025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힘

-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차세대 원자력시스템·안정적 원전운전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 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전기신문 2024.12.15\)](#)

2. 환경부, 2035년까지 냉매 물질 '수소불화탄소' 2000만톤 줄인다

- 정부가 냉매 등에 쓰이는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2035년 배출 예상치보다 약 2000만톤 줄이기로 함

- 환경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에어컨과 냉장고, 냉동기 등 제품을 제작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제품군별로 물질 전환 일정안을 마련함

- 또,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 관리체계를 보완함.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할 계획임

[\(미디어펜 2024.12.18\)](#)

3. 내년에 금융권 탄소배출량 산정하는 플랫폼 구축된다

- 내년에 금융권의 탄소배출량을 산출하는 플랫폼이 구축됨.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도 제정됨

-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등 기관과 협회,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제6차 기후금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힘

- 한편, 금융위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기후 분야에 정책금융 54조원을 공급해 지난 3월 발표했던 '기후금융 확대방안' 첫째 목표치였던 48조6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힘

[\(뉴스트리 2024.12.12\)](#)

글로벌 기업

1. 전기차 못살리면 ‘스텔란티스 日버전’... “현대차엔 반사이익”

- 일본 굴지의 자동차기업 혼다와 닛산이 합병한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양사 합산 글로벌 3위 수준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완벽한 시너지를 낸다는 전제로,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일 수 있다고 봄

- 다만, 중국의 급진적 성장에 밀리는 형세의 두 기업이 결국 몸집만 불린 채 전기차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과거 합병 이후 경쟁력을 크게 상실한 제2의 일본판 ‘스텔란티스’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옴

[\(아시아투데이 2024.12.18\)](#)

2. 테슬라, 美 최초 대규모 리튬 정제공장 가동

-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에 지은 미국 최초의 리튬 정제공장이 가동에 들어감

- 15일(이하 현지시각) 테슬라라티에 따르면, 테슬라는 전날 X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미국 텍사스주 롱스타운에 완공한 리튬 정제공장이 공식적으로 조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 테슬라라티는 “이 공장은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을 대규모로 정제하는 공장으로서 미국 최초”라고 전함

- 테슬라도 “우리가 리튬 정제공장을 세운 것은 북미 시장에 대한 수산화리튬 공급망을 확충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힘

[\(글로벌이코노믹 2024.12.16\)](#)

3. 리오틴토,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에 3.6조원 추가 투자

- 영국-호주 광산 기업 리오 틴토(Rio Tinto)가 아르헨티나 리튬 프로젝트 확장을 위해 추가 투자에 나섬. 이번 투자를 통해 배터리용 탄산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부임

- 리오 틴토는 1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살라르 델 린콘(Salar del Rincón) 리튬 프로젝트 생산 능력을 연간 6만 톤(t)으로 확대하기 위해 25억달러(약 3조5810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 이번 투자로 기존 3000t 규모 스타터 플랜트에 5만7000t 규모 확장 플랜트를 추가 건설할 예정임

[\(더구루 2024.12.13\)](#)

4. 구글·인터섹트파워, 200억 달러 규모 재생에너지-데이터센터 통합단지 추진

- 급증하는 AI 수요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테크 기업들이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에 나섬

-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청정에너지 개발사 인터섹트파워, TPG의 라이즈클라이메이트 펀드가 향후 10년간 200억달러(약 28조원)를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과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혁신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함

- 2026년 첫 산업단지 가동을 시작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4.12.15\)](#)

국내 기업

1. LG엔솔, 인도 에너지사와 배터리 공장 건립 논의

-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 JSW에너지와 손잡고 배터리 공장 설립에 나섬.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JSW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재생에너지 저장시설 건립을 목표로 협상 중임
- 초기 계약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JSW에너지는 자금을 대는 내용이 담김. 계약 규모는 15억달러(약 2조1천억원)임
- 양사는 시간당 10GW 용량 공장을 인도에 설립하는데 JSW에너지는 용량 약 70%를 에너지 저장과 전기차를 위해 사용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나머지 30%를 이용하는 방안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지디넷코리아 2024.12.18\)](#)

2. 현대모비스, 냉각 신소재 개발... “전기차 배터리 과열 방지”

-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열을 방지해주는 새로운 배터리셀 냉각 소재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
- 진동형 히트파이프(Pulsating Heat Pipe)로 불리는 이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과 냉매로 구성됨. 차량용 배터리 냉각에 진동형 히트파이프를 적용하고 양산 채비를 갖춘 것은 현대모비스가 처음임

[\(뉴스케이프 2024.12.17\)](#)

3. 삼성SDI, GV90 배터리 韓·中 생산 타진

- 현대자동차와 삼성SDI가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16일 업계에 따르면,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현대 GV90 배터리 공급사로 삼성SDI가 선정된 가운데, 중국 시안 공장과 한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계획을 검토 중임
- 삼성SDI는 당초 중국 시안 공장에서만 GV90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함. 국내에서도 생산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건 고객사인 현대차 요청 때문으로 알려짐. 미국 수출을 고려한 것임

[\(전자신문 2024.12.16\)](#)

4. 한화솔루션, 프랑스 최대 BESS 프로젝트 가동... 日 1만 명 소비 용량

- 한화솔루션이 프랑스에서 신규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BESS) 프로젝트 가동에 나섬. 태양광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ESS와 풍력발전 등으로 다변화하며 유럽 내 주요 재생에너지 사업자로의 도약을 꾀함
- 16일 한화솔루션 프랑스법인 ‘큐에너지(Q ENERGY)’에 따르면, 큐에너지는 최근 프랑스 ‘가젤에너지(GazelEnergie)’로부터 수주한 35메가와트(MW)급 ESS 프로젝트 완공 후 운영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더구루 2024.12.16\)](#)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12.13(금) ~ 2024.12.19(목)

제공일시 2024 12 2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일본, 2040년까지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기후 목표 향한 도전

- 일본 자원에너지청이 2040년까지 전력의 40~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새로운 목표 초안을 발표했다고 17일 로이터는 전했다

- 이는 현재 약 20%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 이상 확대하려는 야심찬 계획임. 일본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임

- 2040년 목표는 탄소중립을 향한 중간 단계로,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포함될 예정임. 그중 화석연료 기반의 열에너지 의존율은 현재의 70% 가까운 수치에서 2040년 30~40%까지 감소할 계획임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 비중이 크게 높아질 전망임. 2023년 9.8%에서 2040년 22~29%까지 늘어남. 같은 기간동안 풍력은 1.1%에 4~8%로, 수력은 7.6%에서 8~10%로 늘어남

- 원자력 에너지 비중은 2023년의 8.5%에서 2040년에는 20%까지 늘린 가운데, 기존 계획에서 설정된 '원자력 의존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차세대 혁신형 원자로를 기존 폐쇄된 원전 부지에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됐음. 이는 2040년 일본의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12%에서 최대 22%까지 증가할 전망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임

- 또, 기존 계획에 포함됐던 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신연료 관련 내용도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계획에는 제외됐음

- 일본 정부는 LNG 전력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와 함께 안정적인 LNG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장기적인 LNG 계약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LNG의 출처가 화석연료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임

- 특히,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 증가와 관해서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아시아태평양 전력 및 재생에너지 팀 오시타 나오미 연구원은 "상시 발전돼야 하는 데이터센터는 원자력 에너지의 기저부하 전력공급과 잘 맞는다"며 향후 데이터센터 수요가 더욱 증가할 미래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주장했다

- 반면, 일본 자연에너지재단의 오바야시 미카 이사는 증가한 원자력 에너지 비중 대비 여전히 4~8% 남짓에 머무른 적은 풍력 에너지 비중을 지적하며, "이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일본을 뒤쳐지게 만들 것"이라고 평한 바 있음

- 일본의 이번 새로운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에 대한 여러 입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종 전환 계획은 내년 초 내각에서 승인되고 2월에 UN에 제출될 예정임

[\(임팩트온 2024.12.19\)](#)